

민주 “국민 명령, 특검 관철” 정의 “검찰 소환 수사부터”

야권 ‘김건희 특검’ 입장 차

민주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정의 “李 체포동의안 가결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수사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에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검사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의당은 검찰의 소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다. 공소장에 김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됐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남은 길은 특검 뿐이다. 윤석열 검찰은 더는 자격이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김 여사 주가조작 특검에 대해 생떼를 쓰면서 반대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이란 말까지 한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밝히는 게 왜 정치보복이고 민주주의 파괴인가”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 수사를 말하던 국민의힘은 어디 갔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범죄 연루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지 묻어버리는 게 윤 정부와 국민의힘의 민주주의인가”라며 “대통령실과 국힘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인 김 여사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정의당은 특검 보다 ‘소환 수사’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김 여사 소환 수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재판으로 인해 김 여사 소환 수사를 피할 수 없

는 근거가 더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자본시장을 어지럽힌 중대 범죄 수사에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 검찰은 김 여사를 당장 소환 조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책임 있는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량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만 연관성 여부를 입증하는 소환 수사에서 빠져야 하나”라며 “민주당에 들이댄 잣대로 50억 클럽과 김 여사 사안도 판단해 보라”며 검찰의 김 여사 즉각 소환 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못 하겠으면 공정한 법 집행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지금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은 이날 “지지층의 뜻을 모를 리 없다”며 거듭 협조를 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이 문제에 대해선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며 “양특검이 동시 추진되는 게 불가피하다는 말을 정의당과 만나 협의,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박홍근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 대통령”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야당유죄·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임 이후 지난 9개월을 총평하면서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복합경제 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타 사고·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야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행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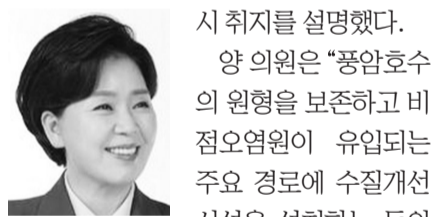
그는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며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양향자, 국회서 ‘광주 풍암호수 살리기 특별사진전’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사진)은 13일부터 15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1층로비에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풍암호수와 함께 ‘빛고을 광주 풍암호수 살리기 특별사진전’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에는 양 의원과 협회 소속 회원들이 촬영한 사계절의 풍암호수 사진 40여 점을 전시 중이다.

양 의원은 “최근 풍암호수를 매립하려는 의견이 나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진전을 통해 풍암호수의 아름다운 비경을 홍보하고, 호수 원형 보존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고 전



시 취지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풍암호수의 원형을 보존하고 비점오염원이 유입되는 주요 경로에 수질개선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대안을 환경부, 광주시와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풍암호수 지킴이로서 광주의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자연 자원을 남겨주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풍암호수는 하루 평균 3000여명의 시민들의 이용하는 광주의 대표적인 시민 휴식 공간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윤영덕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피케팅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 남구갑=사진)은 13일 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단과 함께 본회의에 참석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피케팅을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제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136명, 부상당한 사람은 693명으로 총 829명에 이른다. 윤 의원은 “법의 적용 대상은 민주화운동으로 사망 또는 부상으로 확인된 분들과 그 유가족 800여 명으로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된 만큼 21대 국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전국 권역별 첫 합동연설회가 제주에서 열리는 13일 여의도 국회 본관 복도에서 한 국회 직원이 당 대표 후보 및 청년최고위원, 최고위원 후보들의 홍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

안철수·천하람·황교안, 첫날부터 ‘김기현 때리기’

국힘 3·8 전대 제주 합동연설회 金 ‘尹 탄핵’ 발언에 집중 난타 다자구도 시 결선투표 가능성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위한 전국 합동 연설회가 13일 제주에서 열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주 퍼시픽 호텔에서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첫 합동연설회에는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당대표 후보와 김병민·김용태·김재원·민영삼·정미경·조수진·태영호·허은아 최고위원 후보, 김가람·김정식·이기인·장예찬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이 참석해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당대표 경선은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때리기’에 나선는 형국이다.

김 후보를 견제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김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를 퍼며 보수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김 후보가 안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자, 안 후보는 물론 천하람 후보까지 강력 반발했다. 김 후보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던 황교안 후보까지 ‘김 후보의 기대기 정치’를 비판하며 가세했다.

세 후보의 집중 견제를 받은 김 후보는

안 후보 공격에 힘을 쏟고 있다. ‘안철수 때리기’로 보수층을 결집시켜 결선투표 없이 1차 투표 당선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 방송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제가 1등이라고 나와 있고 1, 2위 격차가 크다고 보도가 돼 있으니 우리 경쟁 후보들 입장에서는 아마 좀 마음이 다급하실 수 있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뚜렷한 양강구도가 아닌 다자구도가 굳어질 경우 1, 2위 표심이 분산돼 결선투표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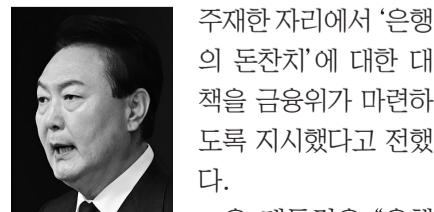
서울=김선욱 기자

윤 대통령 “고금리로 국민 고통 큰데 은행은 돈잔치”

수석비서관 회의 주제 금융위에 대책마련 지시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13일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은행의 돈잔치’에 대한 대책을 금융위가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들에게 이른바 상상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